

장우진, '탁구 천재' 조대성 꺾고 첫 우승

종합선수권 남자단식서 4-0 승
여자단식 서효원 7년만에 금메달
혼합복식 조대성·신유빈 은메달



남자단식 우승 장우진



여자단식 우승 서효원

한국 남자탁구의 간판 장우진(미래에셋대우)이 제72회 파나소닉 종합선수권대회에서 '탁구천재' 조대성(대광고)의 상승세를 잠재우고 첫 우승 기쁨을 누렸다.

장우진은 23일 제주 사라봉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단식 결승에서 16세의 고교생 선수 조대성을 4-0(11-7 12-10 11-7 11-6)으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작년 대회 결승에서 김동현(상무)에게 2-4로 져 우승을 놓쳤던 장우진은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최강자 자리에 올랐다.

장우진은 올해 코리아오픈 3관왕에 이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출몰중인 국제탁구연맹(ITTF) 그랜드파이널에서도 남자복식 우승과 혼합복식 준우승을 차지했다.

반면 조대성은 작년 대회 4강에서 장우진에게 0-4로 완패한 데 이어 2년 연속 장우진의 벽에 막혔다.

만 16세인 조대성은 종전 남자 선수 결승 진출 최연소 기록(18세)을 보유한 안재형 전 여자대표팀 감독을 뛰어넘고 값진 준우승을 수확했다.

장우진이 화끈한 드라이브를 펼치며 설욕을 노리는 조대성을 상대로 기선을 제압했다.

장우진은 첫 세트에 회전량 많은 서브에 이은 날카로운 3구 공격으로 점수를 쌓아 11-7로 이겼다.

반격에 나선 조대성은 2세트 들어 백핸드 드라이브가 살아나면서 거세게 추격해



'탁구천재' 조대성(16·대광고)과 신유빈(14·수원 청명중)이 23일 제주 사라봉체육관에서 열린 제72회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획득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혼합복식에서는 조승민-김지호(삼성생명) 조가 '탁구천재' 조대성(대광고)-신유빈(청명중) 조를 3-2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연합뉴스

내년엔 '타고투저' 사라질까 KBO 공인구 반발계수 낮춰

국제 평균치 맞춰 하향 조정
2019 리그 규정·규칙 확정

극심한 '타고투저' 극복을 위해 KBO리그가 공인구 반발계수를 낮춘다.

KBO는 최근 규칙위원회를 열고 개정된 2019 리그 규정과 야구 규칙을 확정,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인구 반발계수를 국제 평균치에 맞춰 하향 조정 한 것이다.

리그의 '타고투저'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8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국제 대회 경쟁력 논란까지 일자 KBO는 공인구 반발 계수를 국제 평균치에 맞춰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0.4134 이상 0.4374 이하로 미국 메이저리그(MLB)와 일본 프로야구(NPB)에 비해 다소 높았던 반발계수를 0.4034 이상 0.4234 이하로 낮춘다. 변경된 기준은 2019년 시범경기부터 공식 적용된다.

'더블 플레이 시도 시 슬라이딩 규정'도 신설됐다.

주자가 더블 플레이 성립을 방해하기 위해 정당하지 않은 슬라이딩으로 야수에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할 경우, 해당 주자에게 방해가 선

고된다.

심판원이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자와 타자 모두에게 아웃이 선고된다. 주자가 이미 아웃이 된 경우에는 수비 측이 플레이를 시도하려고 한 주자에게 아웃이 선고된다. 해당 플레이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다.

메이저리그에서는 '강정호룰'로 알려진 제도로 이미 시행 중이다.

지난 2015시즌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크리스 코플란(시카고 컵스)의 거친 슬라이딩으로 무릎 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한 것을 계기로 '2루 충돌 방지법'이 도입됐다.

또한 규칙위원회는 야구 배트의 표면에 도포하는 도료는 투명, 빨간색과 구분되는 갈색, 짙은 회색, 검정색으로 제한했다. 배트 소재가 메이플 등의 산공재(軟木材)일 경우 재질의 특성상 해당 부분의 나뭇결이 보이지 않더라도 손잡이 부분만 반드시 나무의 결이 보여야 한다.

퓨처스리그에서 경기 전 지명타자로 타순표에 이름을 올린 선수가 1군 풀업 등으로 타석이 설 수 없을 때, 선발투수를 상대로 적어도 한 번의 타격을 하지 않아도 교체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클로이 김·오타니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미국 신문 선정

'전체 스노보드' 클로이 김(18)과 투타를 겸업하는 메이저리거 오타니 쇼헤이(24)가 미국 지역지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의 '2018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뽑혔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지난 22일 1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자신 사업가, 정치인, 과학자, 의사 등 각계 유명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점이 눈길을 끈다.

한국인 부모를 둔 미국인 클로이 김은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부문에서 금메달을 땀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클로이는 하프파이프 종목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또한, 여자 선수 중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1080도 연속 회전을 선보였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오타니에 대한 설명은 더 구체적이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매년 영향력 있는 100인에 뽑혔던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의 마이크 트라웃의 이름이 올해는 빠졌다. 대신 오타니 쇼헤이를 선정했다"

고 운을 떼며 "에인절스 슈퍼스타인 오타니가 시즌 초 선발 등판하는 날에는 에인절스 타디움에 눈길이 쏠렸다. 오타니는 두려움 타자이기도 하다. 아메리칸리그 신인왕을 차지했고, 베이브 루스 이후 처음으로 50이닝 이상을 던지며 홈런 15개 이상을 쳤다"고 오타니의 올해 활약을 되돌아

봤다.

오타니는 팔꿈치를 다치기 전까지 투수와 타자를 겸업했다. 투수로는 10경기에서 4승 2패 평균자책점 3.31을 올렸다.



클로이 김



오타니 쇼헤이

팔꿈치 통증 탓에 시즌 중반부터는 타자에 전념하며 104경기 타율 0.285, 22홈런, 61타점을 올렸다.

메이저리그 입성 첫해에 신드롬을 일으

킨 오타니는 올해 연말 각종 미국 스포츠 매체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 영예를 안았다. 모든 분야를 망라해도 오타니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다저스, 검증된 에이스 클루버 영입 박차

푸이그·맷 켈프 내보내고
클리블랜드 구단과 협의
우타자 영입도 적극 추진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한 미국프로야구(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검증된 투수 코리 클루버(32)와 우타자 영입에 박차를 가한다.

MLB닷컴은 23일 다저스가 여전히 클루버를 데려오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구단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저스는 전날 외야수 야시엘 푸이그·맷 켈프, 투수 알렉스 우드, 포수 카일 파머와 현금 700만 달러를 신시내티 레즈로 보내고 투수 호머 베일리과 유망주 2명 등 3명을 받는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미국 언론은 다저스가 연봉 총액을 낮춰 올해 자유계약선수(FA) 최대인인 브라이스 하퍼를 잡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저스는 이와는 별도로 선발 마운드 보강 차원에서 클루버 영입을 진행한

다.

다저스는 이달 초 윈터미팅 때부터 2014년, 2017년 두 번이나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을 받은 클루버에게 추파를 던졌다.

외야 유망주 알렉스 버두고를 줄 테니 클루버를 달라고 클리블랜드와 협상 중이다.

다저스는 또 플레튼시스템(좌-우투수 유형에 따라 우타자 또는 좌타자를 기용하는 방법) 균형을 맞추고자 2루, 포수, 외야 자원 중 전력력 있는 오른손 타자의 영입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상으로 포수 J.T. 리얼무토(마이애미 말린스), FA 2루수 D.J. 르메이유에 이어 외야수 니컬러스 캐스텔라너스(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이름도 등장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산행안내

12월 26일(수)
▲광주청룡산악회 12월26일(수) 전남 보성 오봉산(324m) 송년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일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2019년 1월 2일(수)
▲광주청룡산악회 1월2일(수) 경남 함양 남덕유산(1507m)-서봉(1492m),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일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월 5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월 5일-6일(토-일) 제주도 한라산 등반, 봉선동 롯데마트앞 4일 저녁 21: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21:20, 영주체육관 21:30, 한국병영앞 21:40, 문예회관 후문 21: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22:00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1월 6일(일)
▲광주산악회 산악회 전북 김제시 모악산 1월 6일(일) 영주체육관 07:00, 금호지구대 07:05, 무각사 07:10, 사정권내편 07:15, 문예회관 후문 07:25, 비엔날레 주차장 07:30 *다음카페:광주산악회 산악회 T. 010-3603-7718

▲한길산악회 1월 6일(일) 지리산 반북대 산행, 상무정 07:00 무각사 07:10 광주역 07:20 동광주중 07:30 비엔날레 07:40 *다음카페 한길산악회 ☎ 010 4602 3230

▲광주백암산악회 1월 6일(일) 진도 여귀산, 월드컵주차장 07:00, 문예후문 07:20, 북부경찰서 07:30,

문호현대 07:40 *다음카페 광주백암산악회 ☎ 010 2425 4300, 010 3604 8589

1월 9일(수)
▲광주청룡산악회 1월9일(수) 전남 진도 동석산(219m),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일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월 13일(일)
▲광주자연보전담사회 1월 13일(일) 대전 계룡산(845m), 영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중플러스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담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1월 16일(수)
▲광주청룡산악회 1월16일(수) 전남 완도 상황봉(644m),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일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월 20일(일)
▲한길산악회 1월 20일(일) 강원 태백산 눈꽃 산행, 상무정 04:00 무각사 04:10 광주역 04:20 동광주중 04:30 비엔날레 04:40 *다음카페 한길산악회 ☎ 010 4602 3230

1월 23일(수)
▲광주청룡산악회 1월23일(수) 경남 사천 비토도 트레킹(약 9km),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일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월 30일(수)
▲광주청룡산악회 1월30일(수) 전남 해남 두륜산(703m),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일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채권 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18년 11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19년 1월 23일까지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18년 12월 24일
주식회사 진도성원에너지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05 (중흥동,3층)
대표청산인 오 정 숙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1관 아쿠아맨, 마약왕
2관 마약왕, 도어락
3관 아쿠아맨
4관 스윙키즈, 범블비
5관 스윙키즈, 범블비, 도어락
6관 아쿠아맨
9관 보헤미안 랩소디, 도어락
7관 씨네키즈, 스윙키즈, 스파이더맨, 국가부도의 날
8관 씨네키즈, 미야왕, 그린치, 쟁구는 못말려, 포켓몬스터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2018미술훈예술회관 공연
예매21년, 소리와 선율을 그림에 담다
11.28(수)~12.3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광주시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12.22(토)~25(화)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Wish your merry X-mas
12.24(일) 7:30pm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